

UGANDAN MISSION NEWS by Missionaries Luke S. Ahn, D. Miss. & OkHee Ahn

대한민국 축구팀이 세계 랭킹 1 위 독일을 2:0 으로 격파하였던 Russia 월드컵의 감동은 끝났지만 이 곳 우간다의 축구 열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월드컵과 관계없이 축구는 Uganda 뿐 아니라 Africa 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우간다 어디를 가도 동네 아이들이 축구공 없이도 둥그런 뭉치를 차며 축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0 년대 어렸을 때 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던 모습이지요. 저도 그렇게 어린 시절 동네에서 축구를 하며 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네에서 시작했던 축구가 선교지에서도 복음의 유용한 도구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6 월 중순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약 한 달의 공백

물어보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몇 청소년들이 ‘선한 삶으로’, 혹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로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지 복음의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모슬렘 청소년도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반 수 정도가 영접기도를 하고 주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엄 선교사는 토요일성경축구모임에 나오는



속에서도 18 명의 어린이들이 토요일성경축구를 위해 모였는데 지난 주 토요일에는 43 명, 인원을 제한하기 위해 일찍 문을 닫아서 밖의 나무 위에 올라 축구를 보았던 7 명의 어린이까지 하면 총 50 명이 몰려든 셈이었습니다. 두 명의 장애 청소년은 축구를 구경하고 싶다며 휠체어를 타고 오기도 했습니다.

축구 시작 전에는 선교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40-50 명 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영어를 몇 개 반으로 구성해서 5 월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소년들이 나이가 10 세 에서 16 세에 이르고 영어수준도 다 각각인지라 시간대를 나누고 레벨을 나누어서 크게 네 반으로 나누어 공부를 시작하니 집중도 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오면 먼저 성경말씀에 근거하여 씌여진 What Would Jesus Do 라는 책을 읽어 주고, 돌아 가며 한번 읽고 질문하고

대답하며 생각할 시간을 갖고 기도로 끝마친 후에 영어 공부를 합니다. 10-12 세 아이들은 알파벳부터 시작해야 하는 반과 그 수준은 넘은 반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 고급반을 지금 찬주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축구를 하고 나서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 온통 남자 아이들만 그득하여서, 엄선교사가 여학생들을 찾던 중에, 이 주 전부터는 길에서 기다리다가 만난 여학생들 셋과 함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개의 반인데 수준을 봐서 여학생과 남학생 15-16 세 반을 통합할지 지켜 보는 중입니다. 영어와 더불어 지도자 훈련과 성경읽는 시간을 함께 하여서 요셉처럼 주 안에서 꿈꾸는 청년들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요청됩니다.

이 곳에서 영어로 대부분 대화가 가능하지만 영어를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영어를 하더라도 이 지역 언어인 Rutoro 사용하면 아주 친근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짧게나마 루토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하기도 하고 아주 신기한 듯 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사탕 전도도 시작했습니다. 그냥 전도만 하기보다 알 사탕 하나씩 주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여러 봉투 사다가 놓고 초등학교와 중고등 학교 학생들 등교 길 혹은 하교 길에 주면서 전도하니까 아주 좋아합니다. 복음 전도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금지 국가들 뿐 아니라 자유 국가들 가운데도 교묘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고 선포하였던 사도들과 같이 지속적으로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7월 초에는 첫 학기 수강자 중의 한 분인, 요셉 목사님의 가정교회를 방문하여 교회 건축을 위한 건축헌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밤에 기도회 할 때 술취한 사람들이 돌도 던지기도 하고 줌도독이 들기도 한다는 어려운 사정도 들었습니다. 요셉 목사님에 의하면 낮에는 멀쩡하던 사람들도 밤만 되면 돌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간다가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우간다 교회가 우간다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동네에서 전도하다가 우연하게 이 곳에서 오래 전에 성실히 일했던 청년 Robert 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탕도 주면서 지금 근황을 물어보니 직업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학비가 모자라서 지금 학비를 모으러 다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선교사와 상의해서 다닌다는 직업학교를 직접 찾아서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평안과 만족함을 주시는 참 행복의 비결임을 체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갈릴리 뿐 아니라 주변 지역,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인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갈릴리 동부 지역에 위치한 지금의 요르단인 Decapolis 까지 가셔서 전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편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만 그것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에 선교

사무실 직원들도 만나보고 학교 교실 있는 곳도 가보고 한 다음에 학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퇴출되기 직전의 로버트를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Robert 에게 수업이 없는 목요일 아침마다 선교센터로 오라고 해서 일대일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일할 때 성실하기는 하였는데 회교도 친구를 사귀어서 이슬람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어떻게든 주님께로 인도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길거리 전도 중 만나게 해주셔서 학비도 도와주고

일대일 성경공부까지 하게 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사랑에 놀랄 뿐입니다. 로버트는 배우고 있는 plumbing 기술을 가지고 선교센터의 고장 난 화장실 변기와 물이 새는 파이프도 고쳐주었습니다. 로버트가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속에 성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막내 찬주는 4년 동안 물론 친척과 지인들이 여름마다 돌봐 주셨지만, 대학생활 하며 집 밥을 먹지 못했는데 이 곳에 와서 책도 읽으며 실컷 먹고 잠도 잘 자고 4년 동안의 피로를 풀며 지내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엄 선교사와 함께 동네 아이들 영어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제는 생일이라고 밤새 엄 선교사와 함께 전기 밥솥에 케익을 만들었다고 해서 쿨쿨 잠만 잤던 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생일 케익이 신기하리만큼 맛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즐겁게 생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구좌를 관리해 주시는 아버님께서 이번에도 잊지 않으시고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이었습니다.

우리 컴파운드(부지)의 잔일을 돌보는 이곳 현지인 먼데이 (Monday, 월요일에 태어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8개월 가량 일했는데 영어가 짧은지라 의사 소통이 잘 안 되기도 했지만 한 달에 한번 집에 다녀오라고 보내면 약속을 늘 어기고 우리의 지난 미국행 스케줄에도 차질이 생길 뻔 한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다녀오라고 하면서 이번엔 약속을 지키겠지 설마... 했는데 예정보다 일찍가고 약속보다 늦게 왔습니다. 어찌할까 결정의 순간인가보다 하면서 우리는 의논을 했습니다. 일곱 번씩 일흔 번도 용서하라는 말씀도 있는데 한번 더

기회를 주자고 결정했습니다. 단, 매번 이런 일이 있어도 아무런 ‘벌’을 준 적이 없고 오히려 먼데이의 아들의 학비까지 지원해주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는 깨달음이 없겠다 싶어서 하루치의 급여를 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약속을 꼭 지켜주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또한 미국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모두와 교회들을 여름의 폭염과 위험 속에서도 늘 지켜 주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간구드립니다.

선교의 요충지 우간다에서 안승준, 엄옥희 선교사 드림.

기도제목 prayer topics

1.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증거 되는 삶 위해 Pray that Christ would dwell within us in His fullness and be testified through us as we live in Christ.
2. 우간다교회가 우간다를 변화시키고 세계 선교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Pray that Ugandan churches would change Uganda and be the center of world mission.
3. 카징고 성경대학이 지역 사회 계발과 복음 확장의 통로가 되도록 For Kazingo Bible Institute to be a channel of developing the community and spreading the gospel.
4. 목회자들 신학훈련과 청소년과 어린이 축구선교와 영어 지도 위해. For the theological training for the local pastors, soccer mission for youths and children, and English teaching for children, and youths.
5. 자녀들(영주, 덕주, 찬주)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주를 알며, 그리스도를 전하고 학업(영주의 대학원, 찬주의 9월 박사 과정)과 직장생활(덕주)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한국에서 후원 관리를 해 주시는 안 선교사의 부모님과 미국에 계신 엄선교사의 어머니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Pray that Christie, Timothy, and John may grow in knowing Christ in close relationship with Him and make Christ known through them. And pray for Christie's graduate study, Timothy's work, and John's new study at Ph.D program and for the spiritual and physical health of the parents in S. Korea and in U. S.
6. 선교지에서 운전 중의 안전과 주변의 정세로부터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For the safety from driving and political and social surroundings
7. 안 선교사의 어머니의 왼쪽 팔과 다리의 완전한 회복과 눈의 회복 위해. For a complete recovery of missionary Ahn's mother's left arm and leg, and her eyes from cerebral infarction.
8. 엄 선교사의 사역과 다음학기 Online MA-TESOL 과정 위해. For missionary Um's Literacy ministry and Online MA- TESOL PROGRAM .